

날짜 2022-12-04(D1) 본문 눅2:8-20
번호 2344 설교 변일국 목사
구분 주일예배, 성찬 찬송 찬110, '고요하고 거룩한 밤'

‘아기 예수를 맞이하는 사람들’

시작 주기도
찬송 찬110, ‘고요하고 거룩한 밤’
기도 권영희 사모
설교 눅2:8-20
성찬 마26:26-28, 찬230, ‘우리의 참되신 구주시니’
찬송 찬112, ‘그 맑고 환한 밤중에’
봉헌 권영희 사모
광고

- ① 성찬 오늘은 12월 첫 주, 예배 중 성찬 있습니다.
- ② 주보 발행 잠정 중단 사정이 있어 당분간 주보 발행을 잠정 중단합니다.

헌금기도, 축도

¹⁰주린 자에게 네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네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네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¹¹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네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네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 댄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사58:10-11)

오, 주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말씀을 의지하여 지난 한 주 저희에게 주신 것 가운데 일부를 다시 주께 드리오니 이것이 주린 자와 괴로운 자를 돕는 일, 곧 주님의 일에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빛과 도우심의

그 은혜와 사랑이 오늘, 말씀을 듣고 자기 마음에

오, 거룩하신 사랑의 주님, 오늘은 누가복음 2장 8절로 20절, 밤에 밖에서 자기 양 떼를 지키던 목자들이 천사들을 만나 주님, 곧 메시아 탄생 소식을 듣고 얼른 다윗의 동네로 가서 구유에 누이신 아기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으로, 제목은 ‘아기 예수를 맞이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양은 사랑과 인애를 동반한 선, 곧 주님으로 말미암은 우리 안에 있는 선을, 목자는 그런 선을 주변 밤과 같은 어두운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잠들지 않고 끝까지 지켜내려는 신실한 주님 사랑, 주님 신앙의 사람들이라는 것, 주님은 이런 사람들에게 찾아오셔서 힘주시며 함께하신다는 것, 주님이 우리 심령 가운데 들어오실 때 우리가 두려워 떠는 것은 우리의 속 사람이 떠는 것이며, 그것은 거룩하신 주님이 우리 걸 사람의 악과 거짓 때문에 곤란을 겪게 되지는 않을까, 모독을 당하지는 않을까 하는 거룩한 염려, 순결한 영적 두려움이라는 것, 강보는 가장 순수한 진리, 곧 주님한테서 직접 나오는 첫 번째 신성이시라는 것, 주님이 구유에 나신 이유는 여관, 곧 당시 교회 안에 주님이 오실 선과 진리가 없었기 때문이며, 말과 구유가 이해(*understanding*)와 교리, 곧 주님 사랑, 주님 신앙의 사람들의 지성을 참된 교리라는 양식으로 먹이시는 주님을 뜻한다는 것, 베들레헴이란 천적인 것과 영적인 것의 경계, 곧 영적인 것이 더욱 천적인 것으로 나아가게 하는 연결고리라는 것, 그래서 왜 주님은 베들레헴 어느 여관 마구간에서 탄생하셔야 했는지, 왜 강보에 싸이심을 천사는 강조했는지 하는 그 귀한 말씀들을 들었습니다.

오, 주님, 저도 저 목자들 같은 사람이 되어 주님이 늘 편히 찾으실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힘쓰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간절히 기도하는, 이 자리 모인, 그리고 인터넷으로 이 말씀에 귀 기울이는 모든 주의 자녀들의 심령 가운데, 생활과 삶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